



영금정

## 설악산과 동해바다, 그리고 호수가 있는 천혜의 땅 ‘속초 둘러보기’

글 사진 김 맑 음 <여행작가>

**속**초 하면 으레 설악산을 떠올리게 된다. 속초의 상징으로 우뚝 선 산인만큼 사연도 가지가지이고 웅장함이랄지 아름다움이 여느 산을 압도한다. 설악산은 지리산, 한라산과 더불어 남한의 3대 명산으로 꼽히거니와 해마다 수많은 관광객이 다녀가 지역경제에 효자 노릇을 하고 있다. 산의 높이도 한라산과 지리산에 이어 남한에서 세 번째로 높다. 사철 자연의 신비가 도드라지고 아기자기한 산악미가 으뜸이다.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는 설악산의 자연생태계를 직접 느끼고 체험할 수 있게 자연해설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소공원에서 비룡폭포까지 약 2.4km에 이르는 비룡폭포자연학습탐방로와 소공원에서 군량장까지 약 1.8km에 이르는 비선대자연학습탐방로는 왕복 약 2시간이 소요되며 곳곳에 설치된 자연해설판은 다양한 동식물의 모습과 계곡, 폭포에서 생기는 신기한 자연현상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속초는 산과 함께 거대한 호수도 볼 수 있는데, 청초호와 영랑호가 그것이다. 날이 갈수록 비대해지고 있는 시(市)는 청초호를 중심으로 발달되어 있다. ‘쌍성호’, ‘진성호’란 이름도 갖고 있는 청초호는 둘레가 약 5km나 되는 큰 호수로 속초시 중앙동, 금호동, 청학동, 교동, 조양동, 청호동으로 둘러싸인 석호이다. 먼 옛날 군수가 새로 부임하면서 환영연을 이 호수 위에서 베풀 정도로 이름을 날렸던 곳이다. 밤에 나무 판자 위에 숯불을 피워 물위에 띄워놓고 배에 술과 안주를 실은 뒤 기생과 지방유지들이 함께 타고 춤과 노래를 부르며 호수 주위를 돌아다니는 불꽃놀이를 하였는데, 이를 ‘논피호 불꽃놀이’라 했다고 전해온다. ‘논피호’란 논산 앞 호수란 뜻으로 지금의 청초호를 가리킨다. 이 불꽃놀이를 구경하



대포항

기 위해 멀리 양양에서까지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고 한다.

시 북단 해안가에 자리한 영랑호(永郎湖)는 원래 바닷물이 드나들던 석호였으나 지금은 물길이 막혀 내륙호수가 되어 버렸다. 호수 뒤로는 설악산이 앞으로는 동해가 펼쳐져 있어 경관이 빼어나다. 삼국유사에 따르면 신라시대의 화랑이었던 영랑이 친구들과 함께 금강산에서 수련을 마치고 돌아가던 중 이곳 경치에 반해 머물렀다고 하는데, 영랑호는 영랑의 이름을 따서 붙인 것이라 한다.

영랑호에는 속초팔경 중의 하나인 범바위가 있다. 범바위는 호숫가의 커다란 바위들이 호랑이를 닮았다고 해서 붙은 이름이다. 범바위 옆에는 한국전쟁 때 이 지역에서 전과를 올린 김병휘 장군의 전공을 기리기 위해 세웠던 금장대(金將臺)란 정자 자리가 있는데, 지금은 기단만 남아 있다. 영랑호는 인근의 청초호와 함께 겨울이면 고니, 청둥오리, 가창오리 같은 수많은 철새들이 날아와 장관을 펼친다. 예로부터 영랑호에는 암룡, 청초호에는 숫용이 산다는 얘기가 전해온다. 마을 사람들은 이것으로 농사의 길흉을 점쳤는데, 남쪽을 향해 논밭을 갈아 놓으면 풍년이 들고, 북쪽을 향해 갈아 놓으면 흉년이 든다고 믿기도 하였다.

영랑호에서 승용차로 10분 거리에는 동명항이 있다. 갯내음 물씬한 동명항은 바로 옆의 속초항과 함께 수산물 집산지로 거듭나고 있다. 항구 한쪽에 있는 영금정(靈琴亭)은 바닷가에 흠어져 있는 암반지대로 예전 모습은 많이 지워졌지만 아직도 이 일대는 아기자기한 해변 경관을 감상할 수 있어 많은 사람들이 찾는 명소이다. 영금정이 있는 자리는 원래 높은 바위산이 있던 곳이라고 한다. 바위산의 모양이 정자 같아 보였고, 또 파도가 이 바위산에 부딪치는 소리가 마치 거문고 소리같이 신비해서 영금정(靈琴亭)이라 부르게 되었다는 얘기가. 그러나 이 이름답던 바위산은 일제시대에 속초항을 개발하면서 방파제를 쌓고 깎이고 패이는 수난을 겪어야만 했다. 지금의 넓적한 바위지대는 그런 수난이 가져온 결과이다. 영금정은 해상에 세워진 50m 정도의 다리를 건너야 들어갈 수 있다. 해상 정자에서 바라보는 주변 경치는 아름답기 그지없다. 특히 이른 아침 수평선으로 떠오르는 해돋이는 탄성이 절로 나온다.

영금정 뒤쪽 언덕 위에는 속초팔경의 하나인 등대전망대가 있다. 전망대에 올라 바라보는 맑디맑은 동해 물빛은 세상의 시름을 싹 걷어간다. 등대전망대로 오르는 길은 세 가지. 영금정이 있는 바닷가 쪽에서 철계단을 오르는 길과 등대전망대 북쪽의 해안도로에서 오르는 길, 그리고 영금정 입구 도로에서 오르는 길이 있다. 철계단은 매우 가팔라서 오를 때 조심하는 것이 좋다.

북녘땅과 가까운 속초는 한국전쟁이 일어나면서 남쪽으로 내려온 피난민들이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 집단으로 정착하고 있다. 전쟁을 피해 잠시 짐을 푼 그네들은 속초가 수복되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려 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하고 반세기 동안 실항의 아픔을 안고 눌러앉고 말았다. 속초시 청호동은 그네들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곳이다. 급히 피난 나온 그들은 속초에서 제2의 인생을 시작하는데, 입에 풀칠하기도 버거웠던 때인지라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그래도 이곳이 항구여서 남자는 고깃배 타고 나가서 일을 하고, 아낙네들은 포구로 돌아온 고깃배 그물에서 생선들을 떼어내며 어려운 시절을 이겨냈



청 초 호

남한의 3대 명산으로 꼽히는 설악산과 함께  
거대한 호수 청초호와 영랑호, 그리고 드라마 '가을동화' 로  
유명해진 아바이마을(청호동)까지 풍부한 먹거리와 볼거리  
그리고 천혜의 자연이 함께 하는 속초로 떠나보세요!!

다. 속초해수욕장 위쪽으로 난 길을 곧게 따라가면 청호동이다. 보통 '아바이마을'로 더 잘 알려진 이곳은 좁은 길과 낮은 집들이 조가비처럼 붙어 있다. 아바이마을은 이곳에 복한 실항민들이 많이 모여 살기 때문에 붙은 이름이다. 마을 바로 앞은 청초호를 낀 푸른 동해바다. 마을로 이어지는 철교를 건너면 마치 60년대로 돌아온 듯한 퇴락한 옛집들이 즐비하다. 아바이마을(청호동)이 더욱 유명해진 것은 드라마 '가을동화'와 이른바 '갯배' 때문이다. 마을에서 갯배를 타면 속초 시내 중심가인 중앙동으로 건너갈 수 있다. 새벽 4시 30분부터 밤 11시까지 운행한다. 청호동 갯배는 사공이 따로 없다. 무동력선인 갯배를 탄 승객들은 저마다 철근을 휘어 만든 고리로 직접 줄을 끌어 배를 움직인다. 갯배를 타지 않고 속초 시내로 가려면 5리가 넘는 청초호를 한바퀴 돌아야 한다. 그러나 갯배를 타면 1, 2분만에 건너갈 수 있다. 이방인들이 대거 몰려들면서 아바이마을은 옛 정취를 많이 잃어버렸다. 드라마 촬영 장소였던 한 슈퍼마켓은 '은서네집'이라는 현수막과 출연 텔런트들의 사진까지 내걸고 사람들을 맞이한다. 이방인들을 위해 마련한 식당이며 건어물 가게는 늘 붐빈다. 특히 갯배 타기 전 오른쪽에 있는 진양횃집은 주인이 함경도 출신으로 오징어 순대가 맛있기로 소문이 나 있다. 갯배 요금은 성인 기준 편도 1백50원을 받는다.

청호동 들어가는 길목, 속초해수욕장 인근 광장에는 재작년 문을 연 석봉도자미술관이 있다. 석봉도자기미술관(<http://www.dogong.net>, 033-638-7711)은 강원도에서는 유일한 도자기 미술관으로 아이들에게 교육의 장소로, 어른들은 우리 도자기를 보고 느낄 수 있는 체험의 장소이다. 석봉 조무호 선생이 사비를 들여 건립한 석봉도자기미술관은 현대 도예미술의 흐름을 대할 수 있고 미술관 안에서 도자기를 만들고 굽는 전 과정을 보고 배울 수 있다. 특히 도자기관을 여러장 합하여 만든 큰 접시는 기네스북에 등재되었고, 백두산, 금강산, 설악산 등 자연을 소재로 정밀 묘사한 도자기벽화, 또 세종대왕, 명성황후 등 역사적 인물을 묘사한 작품들도 볼 수 있다.

속초 들머리, 대포항에 발을 딛는다. 비린내 진동하는 선창으로 들어서면 길게 늘어선 횃집과 포장마차, 그리고 상인들이 늘어서 방문객들을 맞는다. 이곳에서 잡히는 어종은 멍게, 해삼, 명태, 오징어, 가리비, 광어, 우럭 등 다양하다. 깔끔한 치장을 한 횃집에서는 산지에서 직접 잡아 올린 생선으로 회를 떠 준다. 관광지라 다른 곳 보다 약간 비싼 편이다. 새벽 대포항의 질퍽거림과 신선함은 또 다른 즐거움이다. 갓 들어온 배들이 쏟아내는 생선들, 중매인들의 열기는 고무한 삶에 활력을 준다. 경매를 보고 횃감을 구입하는 것도 색다른 재미다. 서울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싸 가격에 싱싱한 생선을 살 수 있다.

**여행메모** (지역번호 033) = 속초시내에서 청호동행 시내버스 수시 운행. 승용차는 인제 - 용대삼거리 - 56번 지방도로 - 미시령 - 속초 시내 - 청호동, 강릉 - 7번 국도 - 양양 - 대포항 - 청호동. 속초시내와 설악산 주변에 숙박시설이 많다. 설악한화리조트(635-7711), 설악교육문화회관(636-7540), 영랑호리조트(633-1171), 코레스코 콘도(635-8040), 영랑호 범비위 인근에 있는 영랑호타워콘도(633-0001)는 영랑호와 설악산을 한눈에 굽어볼 수 있다. 청호동 관광 문의 강원문화센터(080-671-1016), 속초시청 관광홍보계(033-639-2545), 속초시외버스터미널(633-2328), 고속버스터미널(631-3181), 대한항공(632-2000), 설악워터피아(635-7700)나 척산온천휴양촌(636-4000)에서 여행의 피로를 푸는 것도 좋다.